

남아시아 시장 개척 하세요

포천시 참가업체 오는 30일까지 접수



▲ 삼성전자가 인도 뉴델리에 냉장고 공장 준공식을 갖고있다

포천시가 관내 제조업 및 수출업체들의 해외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아시아 시장개척단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품목 제한은 없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상담 희망품목 명세서를 이달 30일까지 포천시청 지역산업과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희망업체 가운데 열 곳 정도를 선정해 9월 중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 그리고 방글라데시 대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업체는 KOTRA 현지시장조사결과와 포천시 시장개척 참여업체 선정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포천시에서 상담회 개최관련 경비와 시장조사비, 현지어 통역, 바이어(파트너)섭외 및 홍보를 지원하며, 참가업체에서는 항공운임과 체재비 등 개별 경비만 준비하면 된다.

포천시는 지난해에도 중남미 통상촉진단을 구성, 페루와 칠레, 베네수엘라로 파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지역산업과 기업지원부서 ☎(031-530-8286)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길 기자 jpk61@hanmir.com

중국 위해시 환취구 투자 환경설명회

6월14일 오후2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

중국 산둥반도의 동단에 위치해 삼면이 바다인 중국 위해시 환취구 투자설명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환취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환취구는 아름다운 생태환경도시로 2003년도에 유엔으로부터 '인류거주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또 환취구는 완벽한 기초시설로 교통이 발전돼 1시간거리에 두 개의 공항이 있고 한국과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환취구는 행정법규와 법적환경을 개선하고 정치운행규범의 고교율적이고 투자프로젝트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공건설 서류가

지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치안이 양호해 전 세계에서 범죄발생률이 제일 낮은 지구로 알려져 있다. '투자에 보답하는 환취'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변영, 수출입무역, 토지사용, 노동보호, 세무와 해관 상품검사, 자녀취학 등 다방면에 걸쳐 편리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유관부처는 대외 공개 행정업무와 승차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업무를 실시해 투자자들의 일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룹으로 발전 다짐

5일 오전 9시, 고은그룹 창사 14주년 기념식



고은그룹(회장 최효열)이 5일 창사 1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전국에서 최고 경쟁력 있는 그룹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5일 오전 9시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장기근속자 시상식, 최효열 회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기근속자 시상식은 10년 근속자로 고은종합전기(주) 엄정삼 상무이사, 고은기업(주) 박명희 관리부장, 고은종합전기(주) 최두열 대표이사가 상장 및 하와이 여행권을 수상했다.

또 7년 근속 수상자는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전규선 전무이사가 수상해 상장 및 동남아 여행권을 수상했다.

3년 근속 수상자는 고은기업(주) 최규희 기술대리, (주)한국정

보 포천신문사 정병길 업무국장,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최정락 관리이사가 근속기념패와 금반지를 수상하기도 했다. 고은그룹 최효열 회장은 기념사에서 "IMF때에도 회사전통을 현금으로 신축할만큼 튼튼한 회사로 키워준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의 저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최고로 경쟁력 있는 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고은그룹은 지난 90년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설립, 1991년 고은종합전기(주) 설립, 2000년 (주)한국정보 설립, 2001년 고은기업(주) 설립 등 4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주)한국정보는 포천신문사와 옥외광고물공사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다

포천시,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기술 보급으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동계기술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배지역에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기술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를 들어 온실가루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 천적인 "온실가루이좀벌"을 토마토 가지에 매달아 놓는 것을 말한다.

총 1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요발생 해충인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 등을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 방제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재배기간동안 해충방제기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생산된 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1세기에는 친환경농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농업인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친환경농업은 자연농법과 유기농업 등이 연계돼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무농약 농산물 생산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는지 하는 논쟁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천시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경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희수 기자 les682@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사업을 시작할때의 세금전략: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문) 의정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홍길동 씨는 더 나아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오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자.

답)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측면
- 개인기업: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분배 측면
- 개인기업: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법인기업: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다.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측면
- 개인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한다.
- 법인기업: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 세법상 측면
* 세율
- 개인기업: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36%

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5%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로 되어 있다.
* 과세체계
- 개인기업: 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을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 법인기업: 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과세인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 개인, 법인으로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공: 의정부 세무서 031) 870-4252

우리 지역의 사업소 25

동산수지상사 대표 박영주

1천500여개의 특수칼라 데이터 보유 고객의 제품신뢰도 100%달성 고지 확보



압출가공 및 특수, 일반수지 생산 판매업체인 동산수지상사(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51-1 대표 박영주)는 새로운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생산성향상 등에 필요한 정보와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며 핵심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회사다.

박영주 대표는 지난 1980년 수지업체들이 대거 밀집되어 있던 마장동에서 도매업을 시작하면서 수지업계에 입문한다.

그동안 쌓아온 업체들과의 신뢰를 토대로 날다른 경영관계를 발휘하며 성수동에 사업장을 마련해 경영의 일선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2년 5월 내촌면 진목리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최고의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생각하는 하루" "노력하는 한달" 결실맺는 일년"이란 진취적인 사훈 아래 10여명의 임직원들은 완벽한 제품생산, 철저한 관리체제로 상업화 및 시장확대 등 교두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유통과정이 생산공장과 고객들간의 직거래 형태로 변함에 따라 제품생산에 있어 최고의 질과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명함도 내밀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유통에 있어 신뢰는 생명과 같다는 생각으로 협력업체들과 신뢰를 쌓고 제품은 100% 만족도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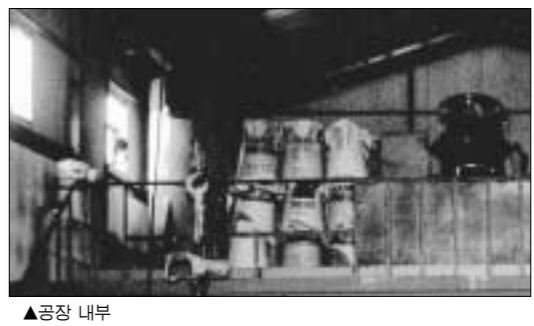
박 대표는 "전자, 가전기구 부품 등에 적용되는 일반pp는 적정 에틸렌 함량이 처방되어 강성과 충격강도가 탁월하고 유통특성이 우수하여 내연성, 난연성, 광택성 등의 특수기능을 갖춘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들 중 소 개로 이루어진 업체들과는 얼굴도 모르지만 전 화 통 화 만으로도 만족할만한 제품을 공급한다'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품된 제품이 없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박 대표의 노력과 연구의 결실이 오늘날 동종업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이다. 동산수지상사는 현재 약 1천500여개의 특수 칼라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 고객이 찾는 제품에 한치 오차도 허락 하지 않고 고객이 100% 만족할만한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동산수지상사는 최근 칼라착색에 필요한 특수 원료를 개발 협력업체들이 시간과 원가를 절감, 경쟁력 강화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정병길 기자 jpk61@hanmir.com



▲공장 내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해야 한다.

2004년도부터는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개인공사로서 330㎡미만은 제외)의 사업주는 사용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정센터(또는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일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미이행사업장과 상실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자신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지역은 의정부고용안정센터(031-853-76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정부의 지방이전 촉진정책 산업공동화 현상 대처

제1회 경제발전토론회 지역경제의 붕괴 위기 극복방안 모색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정부의 지방이전 촉진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제1회 경제발전 토론회'가 지난 4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정책입안자, 기업인, 근로자, 비정부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의 붕괴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순화규 경기도지사는 "도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지역경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어렵다"며 "오늘 이 자리가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실정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 지사는 또 "수도권은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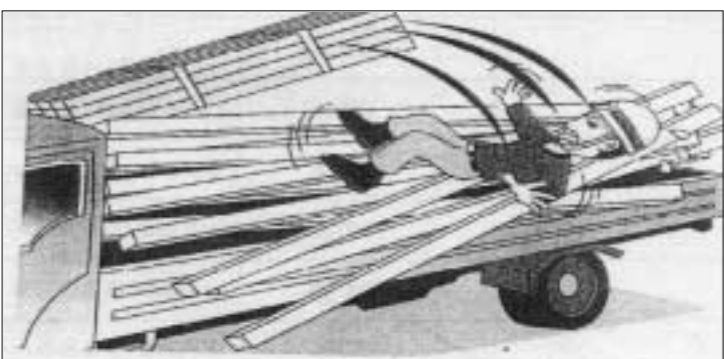
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는 1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땅을 내어주고 고용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병대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는 국내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침체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산업안전사고 예방

트럭에서 목재 하역작업중 추락



2003년 11월 경기도 소재 O가구 작업장에서 화물트럭에 탑승하여 운반중이던 목재(중량 약 700kg)를 인력으로 굴러서 트럭으로부터 하역작업중 차량위에서 목재를 받고 있던 재해자가 목재의 중심을 잃고 2미터쯤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은 작업방법의 부적절로 약 700kg에 달하는 중

량물 하역작업을 단순인력으로 작업시 중량물에 의한 협착, 추락, 요동 등 각종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었으나 인력으로 작업으로부터 하역작업중 차량위에서 목재를 받고 있던 재해자가 목재의 중심을 잃고 2미터쯤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은 작업방법의 부적절로 약 700kg에 달하는 중

로자로 하여금 안전도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해야 하나 미착용 했다.

동종재해 예방대책으로는 보호구 착용과 중량물 취급방법 개선을 들 수 있다.

높이가 2m이상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한 재해(머리 부분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목관을 단단히 조여 추락시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락 재해의 경우 머리부분이 손상을 당하여 심각한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중량물의 운반, 하역, 적재 등 취급 작업시에는 중량물의 형상, 무게 등을 검토하여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문의전화: 031)828-6091